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that Affect Victimization
by Peer Harassment among Children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 안재진*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경님

Dept. of Home Economics, Donga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Ahn, Jae-Jin

Dept. of Home Economics, Donga University

Professor : Lee, Kyung-N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fferent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experience of harassment from their peers. For the individual variables, gender, behavioral problems, and self-esteem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For the family variables, mother's parenting style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were examined, and for the school variables, the supervision of the teacher and the attitudes of the classmates toward bullying were used. Two forms of peer harassment, the overt form and the relational form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sample consisted of 520 fifth grade children.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the data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everal major relationships were found from the analyses. First, the more the children tend to internalize behavioral problems and have lower self-esteem, the more likely they are to get victimized by overt and relational forms of harassment. Boys experience more overt harassment than girls. Second, the more the mother's parenting style is permissive-nonintervening, or rejecting-restricting, and the higher the father's social status is, the more likely the child is subjected to overt and relational forms of harassment. Third, the more the children feel that the teacher is paying attention to bullying, the less the children are subjected to the overt form of peer harassment. Fourth,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mother's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children's self-esteem, children's gender, and the supervision of the teacher regarding bullying significantly affected the experience of overt forms of harassment. A twenty two percent variance in the victimization of an overt form was explained by those variables. Children's in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mother's permissiveness-nonintervention, children's self-esteem, and mother's rejection-restric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 experience of relational form of peer harassment. Twenty six percent of the variance in the relational form of victimization was explained by those variables.

▲ 주요어(key words) :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 harassment), 행동문제(behavioral problems), 자아존중감(self-esteem),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또래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과 급우들의 태도(supervision of the teacher and the attitudes of the classmates toward bullying)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학령전의 시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한다. 그리하여 또래집단은 학령기 이후 아동의 사회화의 중요한 대행자가 된다(Schaffer, 1999).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바람직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며, 바람직한 자아개념과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된다(Kramer & Gottman, 1992). 그러나 모든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괴롭힘을 경험하는 경우, 대인관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어지는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도 한 보도매체(한국일보, 2001. 12. 1)에 의해, 급우들로부터 맞고, 위협당하고, 따돌림당하는 등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례까지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실태와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Olweus(1978)의 정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Olweus의 정의에 따라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을 한 학생이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그 학생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부정적 행동이란 크게 명백한 괴롭힘(overt form of peer victimization)과 관계상의 괴롭힘(relational form of peer victimization)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Crick & Bigbee, 1998). 명백한 괴롭힘은 직접적인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 공격과 욕을 하거나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조롱하는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다. 관계상의 괴롭힘은 생일파티나 학교활동에서 제외시키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 친구가 없도록 만들어 고립시키는 간접적인 심리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최근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또래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보이고 학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어 등교거부 등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양원경·도현심, 1999; 임지영, 1998; 최진희, 2000; Blou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3). 이러한 부적응이 단순히 괴롭힘을 받는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년기나 성인기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나아가 우울증 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Eagan & Perry, 1998; Olweus, 1992) 그 심각성을 더 절감하게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들(김정원, 2000; 양원경·도현심, 1999; 임지영, 1998; 최진희, 2000)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어떠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변인에 의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취약하게 되는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행연구들에 의해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에 관련되는 변인으로 크게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되는 변인으로는 성차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남아가 여아보다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홍재선, 1996; Boulton & Underwood, 1992). 그런데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성차를 보면 명백한 괴롭힘은 남아가 더 많이 경험하며, 관계상의 괴롭힘은 여아가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Crick & Grotpeter, 1996)되나 성차가 없다는 보고(이점숙·유안진, 1999; 임지영, 1998)도 있어 일관성이 없다.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가장 주목되는 변인의 하나는 아동의 행동문제이다.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행동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점숙·유안진, 1999; 최미경·도현심, 2001; 최진희, 2000; Perry, Williard, & Perry, 1990; Schwarz, Dodge, & Coie, 1993)에 의하면 미성숙하거나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적 행동문제와 과다, 공격행동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의 아동은 더 많은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미성숙하며 위축되고 불안한 행동문제로 인하여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피해자(passive or submissive victim)로 과다하고 공격적인 또래에 의한 괴롭힘 아동은 도발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로 구분된다. 불안, 위축된 행동의 내면적인 문제를 표출하는 수동적 피해자들은 공격적 아동이 그들을 더 쉽고 만만한 상대로 보기 때문에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더 취약해져 또다시 괴롭힘을 받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학령기 아동의 10~20%정도가 또래의 공격이나 폭력에 대해 허약하고 성공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불안하고 위축된 행동특성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밝혀지고 있다(Berk, 1992). 또한 외현적인 행동문제를 갖고있는 도발적 피해자는 상대에게 먼저 공격을 가해 상대를 화나게 하고 긴장하게 하므로 또래로부터 공격과 따돌림을 받게 된다(Olweus, 1978; Perry, Kusel, & Perry, 1988; Perry, Perry, & Kennedy, 1992). 대체적으로 전형적인 위축되고 불안한 행동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받는 복종적인 피해아들의 수가 또래들을 괴롭혀 스스로 괴롭힘을 유발하는 도발적인 피해아들보다 더 많다(Schwarz, Dodge, Petit, & Bates, 1997). 한편 낮은 자아존중감의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아동들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또래들과 충돌하는 동안 그들의 욕구를 주장하고 그들 자신들을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낮은 자아존중감의 아동들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다(Egan & Perry, 1998). 이는 또래괴롭힘의 피해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인다는 연구들(이해경·김혜원, 2001; Slee, 1994)에 의해 검증되고 있어 낮은 자아존중감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중요한 개인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개인적 변인 외에 어머니 양육행동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야기하게 하는 중요한 가족환경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또래에 의한 괴롭힘 피해 아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애착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어머니 거부·통제 및 과보호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과 어머니의 불안정한 애착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또래괴롭힘 피해의 선행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계가 있으며(이경남, 2001; 이지원, 1999), 어머니의 강압적이고 감정적인 통제와 민감하지 못한 양육행동은 또래공격 피해와 관련된다(Finnegan, 1995). 어머니와 거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거나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Owelus, 1993; Troy & Sroufe, 1987). 반면 부모의 수용,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덜 경험하게 된다(Perry et al., 1988). 또한 어머니의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여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완화시킬수있다(도현심·최미경, 1998). 그리고 부, 모의 교육수준이나 부의 직업, 모의 취업유무를 포함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 또한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상습적 공격행동의 발생빈도가 증가되며(Olweus, 1984; Whiney & Smith, 1993), 또래괴롭힘 피해는 부의 직업과도 관련된다고 보고(이해경·김혜원, 2001; 임경원, 1997; 이춘재·곽금주, 1999)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 등 가정관련 변인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는 서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이춘아, 2001; Olweus, 1984). 이처럼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의 개인적 변인 및 가족환경 변인 외에 학교환경 변인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발생공간이 주로 학교이므로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과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는 중요하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학교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담임 교사가 학급에서 발생한 또래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더 많이 발생하며(정정호, 2000), 교사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응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감소에 중요하다(권신영, 2000).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

힘은 또래집단내에서 경험되므로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급우들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또래폭력과 관련이 있으며(이상균, 1999), 급우들이 또래괴롭힘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더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박미연, 2000). 따라서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이 아동의 성, 행동문제, 자아존중감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 양육행동,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족환경 변인 및 교사의 지도감독과 급우들의 태도와 같은 학교환경 변인 모두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을 함께 고찰한 연구는 찾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한편, 최근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검토할 때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하위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제기되고있다(이점숙·유안진, 1999). 즉,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하위유형인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차이를 보고하는 연구(이점숙·유안진, 1999)도 있다. 그러므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하위유형별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하위 유형인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대하여 아동의 개인적 변인, 가족 및 학교환경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의 어떠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취약하게 하는가를 이해하고 이들 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개인적 변인(아동의 성, 내재적, 외현적 행동문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명백한 괴롭힘, 관계상의 괴롭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환경적 변인(가족환경 변인, 학교환경 변인)은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1 가족환경 변인(어머니의 양육행동, 부, 모의 학력, 부의 직업, 모의 직업유무)은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2. 학교환경 변인(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 감독,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은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	274	52.7
	녀	246	47.3
아버지 연령	35세이하	6	1.2
	36-40	125	24.0
	41-45	312	60.0
	46-50	63	12.1
	51세이상	9	1.7
	무응답	5	1.0
어머니 연령	35세이하	32	8.3
	36-40	312	60
	41-45	137	26.3
	46-50	26	5.0
	51세이상	2	0.4
	무응답	11	2.1
아버지 교육수준	초졸	11	2.1
	중졸	26	5.0
	고졸	163	31.3
	초대졸이상	292	56.2
	무응답	28	5.4
어머니 교육수준	초졸	17	3.3
	중졸	33	6.3
	고졸	202	38.8
	초대졸이상	240	46.2
	무응답	28	5.4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140	27.0
	사무기술직	141	27.1
	자영 상공인	125	24.0
	피고용기능직	93	17.9
	무직	8	1.5
	무응답	13	2.5
어머니 직업	전문관리직	26	5.0
	사무기술직	67	12.9
	자영 상공인	71	13.7
	피고용기능직	53	10.2
	가정주부	288	55.4
	무응답	15	2.9
가정의 경제적 수준	매우부유한편	18	3.5
	약간부유한편	152	29.2
	보통	321	61.7
	약간가난한편	24	4.6
	매우가난한편	2	0.4
무응답	3	0.6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남녀아동 520명이다.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보면 남아 52.7%(274명), 여아 47.3%(246명)로 성별 분포가 비교적 고를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연령은 41-45세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60%(312명)를 차지하였으며, 36-40세 24%(125명), 46-50세 12.1%(63명)의 순이었다. 어머니 연령은 36-40세 60%(312명), 41-45세 26.3%(137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초대졸이상이 가장 많아서 전체의 56.2%(292명)를 차지하였으며 고졸이 31.3%(163명)로 나타났다. 어머니 교육수준은 초대졸이상 46.2%(240명), 고졸 38.8%(202명)로 나타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기술직 27.1%(141명), 전문관리직 27%(140명), 자영 상공인 24%(125명), 피고용기능직 17.9%(9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은 가정주부가 55.4%(288명)로 취업도 41.8%(217명)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보통이 61.7%(321명), 약간 부유한 편 29.2%(152명)로 대부분의 아동이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거나 약간 부유한 편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의 연령 선정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지각하는 연령이 초등학교 후기인 10세 경부터이며(Hoover, Oliver, & Hazler, 1992), 5학년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의 많은 문항 수에 적절하게 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측정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행동문제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교사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 급우들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태도척도 및 배경변인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 또래에 의한 괴롭힘

아동이 지각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지영(1998)의 또래괴롭힘 척도에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의 9문항을 토대로 이춘아(2001)의 또래괴롭힘 척도를 참조하여 '명백한 괴롭힘' 9문항과 '관계상의 괴롭힘' 9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두 요인 모두에 .40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보인 4문항은 제외되어 총 14문항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 31.2%를 설명하였으며 '명백한 괴롭힘'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6문항으로 전체 27.1%를 설명하였으며 '관계상의 괴롭힘'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명백한 괴롭힘 .90, 관계상의 괴롭힘 .86으로 나타났다.

2)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중 과다, 공격, 위축, 불안에 관련된 문항을 기초로, 정미자(1995)의 사회적 행동특성(공격, 위축)을 참조하여 모두 24문항(과다 6문항, 공격 6문항, 위축 6문항, 불안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행동문제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12문항으로 전체 16.1%를 설명하였으며 '외현적 행동문제'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12문항으로 전체 15.9%를 설명하였으며 '내재적 행동문제'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외현적 행동문제 .79, 내재적 행동문제 .80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변안하여 사용한 김이배(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에 대한 긍정적 4문항, 부정적 5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4점 Likert로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75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영애(1995)의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세 요인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유형에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온정·수용 21문항, 거부·제재 14문항, 허용·방임 8문항 모두 4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로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는 자녀에게 더 온정·수용적이며, 더 거부·제재하며, 더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각 하위영역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어머니 온정·수용 .93, 거부·제재 .90, 허용·방임 .77로 나타났다.

5)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상균(1999)의 척도를 참고하여 구성한 박미연(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생들간의 관계를 살피는 정도, 가해학생에 대한 훈계의 사용,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감독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4점 Likert로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또래 괴롭힘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71로 나타났다.

6)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미연(200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급우들의 또래괴롭힘 행동 및 가해자,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7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척도는 4점 Likert로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에 대해 허용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62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에 앞서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문항의 선별과 문항의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1년 7월 6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1개 초등학교 5학년 아동 40명이었다. 본 연구자가 직접 아동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응답 요령을 설명한 후 회수하였다. 검사시간은 약 25분이 소요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을 이해 못하는 아동은 없었으며, 절차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5학년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1년 7월 16일부터 7월21일 사이에 부산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15학급에서 모두 6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을 설명한 뒤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용 질문지가 배부, 응답되었다. 그리하여 총 562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무응답이 있는 경우와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42부를 제외하고 520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PC+ 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내적일치도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와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변수간 상관관계 및 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

<표 2>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04	1.00													
3	-.10*	.26***	1.00												
4	.05	-.14*	-.47*	1.00											
5	-.01	-.04	-.09*	.14***	1.00										
6	-.03	-.04	-.10*	.14***	.55***	1.00									
7	.01	.00	-.10*	-.06	.20*	-.10*	1.00								
8	.06	-.02	-.11*	.05	.05	.05	-.08	1.00							
9	.07	-.12*	-.18*	.31***	.13***	.16***	-.10*	-.09*	1.00						
10	-.11*	.18***	.25***	-.35*	-.08	-.09*	-.01	.09	-.55*	1.00					
11	.00	.11**	.18***	-.22*	-.11*	-.18*	.03	.05	-.29*	.37***	1.00				
12	-.03	-.07	.02	.08	.08	.06	.00	-.04	.24***	-.14*	-.10	1.00			
13	.06	.13***	.04	-.08	.00	-.02	.04	-.04	-.12*	.05	.03	...	1.00		
14	-.13*	.16***	.39***	-.32*	-.10*	-.10*	-.05	-.02	-.22*	.24***	.27**	-.1305	1.00
15	-.12*	.11**	.48***	-.34*	-.20*	-.08	-.06	-.03	-.17*	.27***	.23**	-.06	.07	.61**	1.00
평균	1.47	31.36	30.11	26.06	3.96	3.68	3.24	4.86	82.23	28.07	17.2	13.1	15.5	14.1	8.58
표준편차	.50	7.17	7.90	4.52	1.57	1.53	1.31	1.56	14.65	11.14	5.70	2.55	3.45	6.32	3.78

** p<.01 *** p<.001

1. 성 2. 외현적 행동문제 3. 내재적 행동문제 4. 자아존중감 5. 아버지 학력 6. 어머니 학력 7. 아버지 직업 8. 어머니 직업유무 9. 어머니 온정·수용 양육행동 10. 어머니 거부·제재 양육행동 11. 어머니 허용·방임 양육행동 12.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 13.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 14. 명백한 괴롭힘 15. 관계상의 괴롭힘

인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각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계수가 .5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 아동의 개인적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성, 외현적, 내재적 행동문제, 자아존중감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개인적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명백한 괴롭힘			관계상의 괴롭힘		
	B	Beta	t	B	Beta	t
아동의 성	-1.16	-.09	-2.29*	-.52	-.07	-1.79
외현적행동문제	3.5E-02	.04	.98	-1.1E-02	-.02	-.52
내재적행동문제	.24	.30	6.36***	.19	.40	8.89***
자아존중감	-.24	-.17	-3.73***	-.13	-.16	-3.54***
	R2 = .19			R2 = .25		

* p<.05 *** p<.001

<표 3>에 의하면 명백한 괴롭힘은 내재적 행동문제($\beta=.30$, $p<.001$), 자아존중감($\beta=-.17$, $p<.001$), 성($\beta=-.09$, $p<.05$)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아동의 명백한 괴롭힘에 대한 총 영향력은 19%이었다. 즉,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여아보다는 남아

<표 4>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가족환경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명백한 괴롭힘			관계상의 괴롭힘		
	B	Beta	t	B	Beta	t
아버지 학력	-.37	-.03	-.44	-9.3E-02	-.01	-.18
어머니 학력	.25	.02	.31	.13	.02	.26
아버지 직업	-1.11	-.08	-1.80*	-.65	-.08	-1.73*
어머니 직업유무	-.65	-.05	-1.16	-.54	-.07	-1.58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3.5E-02	-.08	-1.51	-5.7E-03	-.02	-.41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7.427E-02	.13	2.41*	6.715E-02	.20	3.59***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22	.20	4.08***	9.753E-02	.15	3.02**
	R ² = .11			R ² = .10		

*p<.10 * p<.05 ** p<.01 *** p<.001

가변인처리기준 ; 부모학력(초대졸), 부직업(자영상공인), 모직업유무(전업주부)

가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3>에 의하면 관계상의 괴롭힘은 내재적 행동문제($\beta=.40, p<.001$), 자아존중감($\beta=-.16, p<.0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아동의 관계상의 괴롭힘에 대한 총 영향력은 25%이었다. 즉,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관계상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성은 관계상의 괴롭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외현적 행동문제는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 환경적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1) 가족환경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행동, 부, 모의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의 직업 유무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명백한 괴롭힘은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beta=.20, p<.001$), 거부·제재 양육행동($\beta=.13, p<.05$), 아버지의 직업($\beta=-.08, p<.10$)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아동의 명백한 괴롭힘에 대한 총 영향력은 11%이었다. 즉,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이고 거부·제재적일수록, 아버지 직업이 기능직,자영인보다 사무직,전문직일때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표 4>에 의하면, 관계상의 괴롭힘은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beta=.20, p<.001$), 허용·방임 양육행동($\beta=.15, p<.01$), 아버지의 직업($\beta=-.08, p<.10$)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아동의 관계상의 괴롭힘에 대한 총 영향력은 10%이었다. 즉,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이고 또한 허용·방임적일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기능직,자영인보다 사무직,전문직일때 관계상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부, 모의 학력,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과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명백한 괴롭힘은 교사의 지도감독($\beta=-.12, p<.01$)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영향력은 2%이었다.

즉, 아동이 교사의 지도감독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명백한 괴롭힘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표 5>에 의하면 관계상의 괴롭힘은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과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학교환경 변인은 관계상의 괴롭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학교환경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명백한 괴롭힘			관계상의 괴롭힘		
	B	Beta	t	B	Beta	t
교사의 지도감독	-.30	-.12	-2.71**	-7.4E-02	-.05	.27
급우들의 태도	5.9E-02	.03	.73	6.7E-02	.06	.17
	R2 = .02			R2 = .01		

** p<.01

3.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1) 명백한 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명백한 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명백한 괴롭힘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선행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의

성, 내재적 행동문제, 자아존중감, 아버지 직업,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명백한 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명백한 괴롭힘		
	B	Beta	t
아동의 성	-1.18	-.10	-2.30*
내재적 행동문제	.23	.29	6.11***
자아존중감	-.15	-.11	-2.20*
아버지 직업	-.52	-.04	-.91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2.468E-02	.04	.94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19	.17	3.99***
교사의 지도감독	-.19	-.08	-1.84+
	R2 = .22		

+p<.10 *p<.05 ***p<.001

<표 6>에 의하면 아동의 명백한 괴롭힘은 내재적 행동문제($\beta=.29$, $p<.001$), 어머니의 허용방임양육행동($\beta=.17$, $p<.001$), 자아존중감($\beta=-.11$, $p<.05$), 아동의 성($\beta=-.10$, $p<.05$),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beta=-.08$, $p<.10$)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아동의 명백한 괴롭힘에 대한 총 영향력은 22%이었다. 이들 변인 중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 교사의 또래 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의 순으로 명백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계상의 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관계상의 괴롭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관계상의 괴롭힘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선행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 자아존중감, 아버지 직업, 어머니의 거부·제재, 허용·방임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관계상의 괴롭힘에 대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관계상의 괴롭힘		
	B	Beta	t
내재적 행동문제	.18	.38	8.57***
자아존중감	-8.3E-02	-.10	-2.16*
아버지 직업	-.22	-.03	-.67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	2.978E-02	.09	2.00*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6.597E-02	.10	2.33*
	R2 = .26		

*p<.05 ***p<.001

<표 7>에 의하면, 내재적 행동문제($\beta=.38$, $p<.001$),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beta=.10$, $p<.05$), 자아존중감($\beta=-.10$, $p<.05$),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beta=.09$, $p<.05$)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관계상의 괴롭힘에 대한 총 영향력은 26%이었다. 이들 변인 중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순으로 관계상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하위 유형인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대하여 아동의 개인적 변인(아동의 성, 내재적, 외현적 행동문제, 자아존중감)과 가족(어머니의 양육행동, 부, 모의 학력, 부의 직업, 모의 직업유무) 및 학교(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환경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내재적 행동문제를 많이 가질수록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내면적 행동문제를 많을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보고(이경남, 2001; 이점숙·유안진, 1999)와 일치하였다.

이는 또래의 공격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위축된 내재적 행동문제의 아동은 가해 아동에게 더 쉽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경험하기(Olweus, 1978)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내재적 행동문제는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의 중요한 개인적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해경·김혜원, 2001; Egan & Perry, 1998)와 일치하였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적극적인 자기주장과 자기방어능력을 떨어뜨려 또래로부터의 괴롭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Olweus, 1993)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이러한 연구들의 일치점을 볼 때 낮은 자아존중감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예측하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나 관계상의 괴롭힘은 남아와 여아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명백한 괴롭힘은 더 많이 경험 하지만, 관계상의 괴롭힘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점숙·유안진, 1999; 임지영, 1998; Crick & Grotpeter, 1996)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간접적인 관계상의 괴롭힘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Crick & Grotpeter, 1995; Cowen & Underwood, 1995)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처럼 성에 따른 관계상의 괴롭힘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로는 각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괴롭힘의 척도가 다르고 또래괴롭힘에 대한 자기보고 혹은 또래보고, 교사보고 등 연구방법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나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최진희, 2000; Olweus, 1978; Perry, Perry, & Kennedy, 1992)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의 행동특성으로 나타난 외현적 행동문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공격행동문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관계가 없다는(이경님, 2001) 연구와 유사하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또래들에게 공격적이며, 또래들을 괴롭혀 스스로 괴롭힘을 유발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공격적인 도발적 피해아들은 전형적인 위축된 행동문제로 인한 위축된 피해아 집단에 비해 수가 적기 때문에(Schwartz et al., 1997) 외현적 행동문제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이경님, 2001)와 일치하였고, 또한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방임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하다는 연구(Patterson, Capaldi & Bank, 1992)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도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또래공격으로부터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이지원, 1999)와 일치하였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거부와 엄격한 제재가 자녀의 공격성을 발달시키고(Eisenberg & Fabes, 1998), 이러한 공격적 성향은 아동의 또래

관계에서 중요한 친밀감이나 공감의 결여와 연결되어 또래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또래로부터 배척 당하거나 공격당하기 쉽다는 연구(Finnegan, Hodges & Perry, 1998; Fuhman & Holmbeck, 1995)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방임적이고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허용·방임 및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유발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부정적 가족환경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이 기능직, 자영업보다 사무직, 전문직일때 아동은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관리직 등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또래괴롭힘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임경원, 1997)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부모의 직업 등 가정관련변인들과 상관이 없다는 연구(이춘아, 2001)와는 일치하지 못하였다.

셋째,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은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가 학급에서 발생한 또래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정정호, 2000)와 유사하다. 이로서 교사의 지도감독은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중요한 학교환경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지도감독은 또래에 의한 관계상의 괴롭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 각 하위유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즉, 또래에 의한 신체적이고 명백한 괴롭힘은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이어서 교사의 지도감독으로부터 명백한 영향을 받는 반면에 관계상의 괴롭힘은 모호하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비교적 주목을 받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감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외부로 잘 들어 나지 않는 관계상의 괴롭힘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미연, 2000; 이상균, 1999; Rigby, Cox, & Black, 1997)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의 관련변인으로 나타난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는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 시기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감소한다는 연구(강수령, 2001; 임지영, 1998)를 감안할 때 실제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리하여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본다. 이는 양적 연구의 제한점으로써 추후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별면접을 통하여 급우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관계를 보다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공통적으로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아동의 불안, 위축, 미성숙된 행동은 또래로부터 맞거나 조롱을 당하는 등의 명백한 괴롭힘과 은근히 따돌림을 경험하는 관계상의 괴롭힘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를 완화시키고 적응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증재나 교육프로그램은 또래괴롭힘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어머니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예측하는 중요한 가족환경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증재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을 병행하면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낮은 자아존중감도 아동의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학교나 주위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것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왕원경·도현심, 1999; Olweus, 1994).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낮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어떤 모형의 인과관계 혹은 호환관계가 나타날지는 횡단적 접근보다는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종단적 접근을 통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의 성은 명백한 괴롭힘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관계상의 괴롭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예방지도에 있어 성에 따른 구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도 명백한 괴롭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관계상의 괴롭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버지 직업은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비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함께 고려되었을 때,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직업과는 상관없이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가 많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외현적 행동문제,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부, 모의 학력, 모의 직업유무,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으로 나누어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명백한 괴롭힘이

나 관계상의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의 개인적 변인이나 환경적 변인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내재적 행동문제가 많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어머니의 허용·방임 및 거부·제재 양육행동을 경험하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되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내재적 행동문제를 많이 가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며, 여아보다는 남아가 명백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이고 또한 거부·제재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직업이 기능직, 자영업보다 사무직, 전문직일 때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은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을 많이 지각할수록 명백한 괴롭힘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은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성, 교사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지도감독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 변인의 아동의 명백한 괴롭힘에 대한 총 영향력은 22%이었다. 그리고 또래에 의한 관계상의 괴롭힘은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 변인들의 아동의 관계상의 괴롭힘에 대한 총 영향력은 26%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는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은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중요한 가족환경 변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도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상의 괴롭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과 교사의 지도감독은 또래에 의한 명백한 괴롭힘에, 어머니의 거부·제재 양육행동은 관계상의 괴롭힘에만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의 직업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내재적 행동문제와 자아존중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아동의 외현적 행동문제,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 부, 모의 학력, 모의 직업유무,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자기보고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자기보고는 아동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또래보고, 교사보고, 및 관찰보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가족 및 학교환경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나,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특히 학교환경 변인은 교사의 지도감독과 급우들의 또래괴롭힘에 대한 태도 정도에 한정되어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학교환경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더 많은 학교환경 변인을 포함한 환경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접수일 : 2002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3월 26일

【참 고 문 헌】

강수령(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 사회적 유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이배(2000). 부모의 실직상태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2000).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신영(2000). 학교 또래괴롭힘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대응.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현심·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박미연(2000). 초등학교 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원경·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7.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8), 31-52.

이지원(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점숙·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명백한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이춘아(2001). 청소년의 또래공격성과 피공격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춘재·곽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이해경·김혜원(2001). 초등학교 학생의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심리* 29(2), 117-138.

임경원(1997).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족분위기가 청소년의 또래 공격성 및 또래희생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영(1998).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관련변인간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정호(2000). 또래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경·도현심(2001). 또래괴롭힘 피해아의 경험에 의한 심층면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31-46

최진희(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관계에 끼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현·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홍재선(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일보. '왕따'투신 초등학교 학생 끝내 숨겨. 2001. 12. 1. 31면

Berk, L. E.(1997). *Child Development(4th)*, Allyn and Bacon.

Blouton, M. J., & Underwood, K.(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Crick, N. R., & Bigbee, M. A.(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Crick N. R., & Grotpeter, J. K.(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 aggression. *Development Psychopathology* 6, 367-380.

Cowen, E. C. & Underwood, M. K.(1995). Auger and spice and everything nic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of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Eisenberg, N., & Fabes, R. A.(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 701-778). New York : Wiley.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Finnegan, R. A.(1995).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 Links with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1998). Victimization by peers :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1076-1086.

Fuhrman, T., & Holmbeck, G. N.(1995). A contextual-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793-811.
-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1992). Bully :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Kramer, L. & Gottman, J. M.(1992). Becoming a sibling: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85-699.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 Bullies and their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 Hemisphere.
- Olweus, D.(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pp. 57-76) NY: John Wiley & Sons.
- Olweus, D.(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55)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Olweus, D.(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pp. 315-341)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lweus, D.(1994). Bullying at school : Long-term outcomes for the victims and an effective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L. R. Huesmann(Ed), *Aggressive behavior : Current perspectives*. (pp. 97-131) NY: Plenum Press.
- Patterson, G. R., Capaldi, D., & Bank, L.(1992). Two paths to delinquency : The early and late starter models. In K. B. Rubin & D. Pepler(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 Psychology* 24, 807-814.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 C.(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Perry, D. G., Perry, L. C., & Kennedy, E.(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In C. U. Sc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dolescent development*. (pp. 301-329)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gby, K., Cox, I., & Black, G.(1997). Cooperativeness and Bully/Victim problems among Australian schoolchildr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3), 357-368.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chaffer, D. R.(1999). *Developmental Psychology(5th)*. California: Brooks/Cole.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lee, P. T.(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Troy, M., & Sroufe, L. A.(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Whitney, I, & Smith, P. K.(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35, 3-25.